

		<h1>보도자료</h1>		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			총 3쪽(붙임 1 포함)	
배포일시	2025. 7. 7.(월)	담당부서	국립부산국악원 장악과		
담당과장	김정수 장악과장 (051-811-0030)	담당자	이미애 학예연구사 (051-811-0063) 서선영 주무관 (051-811-0034)		

한·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
평화의 상징 '조선통신사'의 여정을 한국의 춤과 음악으로 그리다
무용극 <춤, 조선통신사_유마도를 그리다>
 2025년 7월 19일(토) 오후 6시, 20일(일) 오후 2시 일본 요코하마 나가와예술극장
 7월 24일(목) 오후 7시 일본 동경문화원

한국의 전통예술로 다시 걷는 조선통신사의 길, 요코하마·도쿄 공연 개최

- 국립부산국악원(원장 이정엽)은 7월 19일(토), 20일(일) 양일간 일본 요코하마 가나가와예술극장(KAAT)에서 무용극 <춤, 조선통신사_유마도를 그리다>를 개최한다.

평화와 선린외교의 상징, 문화예술로 통신사의 길을 걷다

- 한·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이번 공연은 조선시대 한·일 간 우호 외교의 상징인 '조선통신사'를 주제로 양국간 문화교류의 역사와 평화의 메시지를 예술로 재현하는 의미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. 국립부산국악원은 이번 해외 공연을 통해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문화사절단으로서 한·일 양국 간 우호와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.

언어의 장벽을 넘어 한국전통예술로 그려낸 평화의 여정, 조선통신사를 다시 조명하다.

- 무용극 <춤, 조선통신사_유마도를 그리다>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'조선통신사'의 여정을 그려낸 소설 「유마도(원작 강남주)」를 모티브로 통신사 사행길에 오른 무명 화가 변박이 그린 그림 '유마도'의 비밀을 파헤치는 작품이다. 소설 속 조선통신사를 재조명하여 400년 전 통신사들이 건넜던 망망대해와 여정을 한국의 춤과 음악으로 표현한 수작이다.
- 춤과 음악, 무대의 완벽한 조화로 극찬받은 2019년 초연 이후, 2023년 더 세밀하고 탄탄하게 재구성하여 전석 매진과 기립박수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, 2024년, 2025년에도 이어 개최하며 한국 관객들을 만났다.

역동적인 군무부터 압도적 무대미술과 생동감 있는 연출로 그려낸 대장정

- 이번 공연은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수려한 몸짓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국서(國書)를 전달하기 위한 조선통신사들의 긴 여정을 무대 위에서 생생하게 그려냈다. 특히, 무대를 가득 채운 LED배경막의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무대와 더불어 통신사 일행이 탄 배 '사행선'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무대미술과 40여명의 출연진이 펼치는 공간감과 깊이감 있는 무대 연출로 공연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.

문화교류를 넘어, 예술로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

- 조선통신사의 진정한 의미는 문화교류로 끝나지 않는다. 문화교류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행단의 사명이었다.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한-일 양국의 평화를 넘어 세계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.
- 이번 공연은 7월 19일(토), 20일(일) 양일간 총 2회의 공연을 개최한다. 토요일 오후 5시, 일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한다. 공연관람은 취학아동이상으로 공연료는 무료이다. 자세한 공연관람 및 상세내용은 가나가와 예술극장(<https://www.kaat.jp>), 이플러스(<https://eplus.jp>)에서 확인 가능하다.
- 그리고 요코하마 공연에 이어 7월 24일(목)에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<동래의 춤: 조선에서 일본까지(東萊の舞: 朝鮮から日本まで)>도 함께 개최한다. 조선통신사 출발지인 '동래' 지역의 전통춤을 중심으로 '춘앵전', '진주교방굿거리춤', 황무봉류 '산조춤', '굿과 금회복춤'등을 선보이며 한국 고유의 정서와 흥을 전할 예정이다.
- 이정엽 국립부산국악원장은 "한·일 국교 6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해에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일본 국민들과 교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."며 "이번 공연이 양국 간의 문화적 공감 우호 증진에 기여하기 바란다"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부산국악원 장악과 서선영 주무관(☎ 051-811-003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 공연 개요

공 연 명	<춤, 조선통신사_유마도를 그리다>
일 시	2025. 7. 19.(토) 오후 6시 2025. 7. 20.(일) 오후 2시
장 소	가나가와예술극장(KAAT)
주 최	국립부산국악원, 가나가와예술극장(KAAT)
후 원	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, 가나가와현, 요코하마시
협 력	주일본한국문화원
출 연	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 등
제작진	원작_강남주, 총감독_안무_정신혜 연출_조주현, 작곡_김백찬
예술감독	계성원(기악.성악단), 복미경(무용단)
관 랑 료	1,000엔
관람시간	75분 내외
예매문의	가나가와 예술 극장(https://www.kaat.jp)
예매처	이플러스(https://eplus.jp)



공 연 명	<동래의 춤, 조선에서 일본까지>
일 시	2025.7.24.(목) 오후 7시
장 소	주일한국문화원 한마당홀
주 최	국립부산국악원, 주일한국문화원
출 연	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
예술감독	계성원(기악.성악단), 복미경(무용단)
관 랑 료	전석 무료(사전예약)
관람시간	60분
예매문의	주일한국문화원 (https://www.koreanculture.jp/)

